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2년 도시혁신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2. 12.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1
2. 2022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7
1. 현장방문	7
2. 전문가특강	13
3. 월례회의	15
III. 활동후기	17
IV. 언론보도	21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1
2. 2022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 -1. 도시혁신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도시혁신연구회

☐ 소속의원 : 이경선(대표), 주이삭(간사), 서호성 의원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도시혁신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서대문구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점검	
	목적	-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 도시에서의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활동기간		2022년 9월 ~ 2022년 12월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2년)	총 액	금이백삼십만원(금2,300,000원)	
	산출내역	- 행사비 : 650천원 - 견학비용 : 650천원 - 업무추진비 : 5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 500천원	

☐ 연구목적

- 주거환경만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아닌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연구
- 도시에서의 쓰레기, 에너지, 먹거리 등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연구주제 : 서대문구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점검

☐ 활동방향

- 태양광 설치 시설 운영 실태 점검
- 쿨루프 사업 실효성 및 확대방안 연구
- 빗물 저금통 설치 실효성 및 활용방안 연구
- 주민참여형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구

☐ 2022년 월간 활동계획

- 주요내용
 - 사업지원 검토
 - 서대문구 에너지자립마을 간담회
 - 에너지 효율화 설치 실효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동작 성대골 마을 방문 & 광주광역시 전환마을 사업현장 방문
- 월간 계획

9월	월례회의, 주민간담회, 현장견학
10월	월례회의, 전문가 특강
11월	월례회의, 연구회 활동 결과 정리, 주민간담회
12월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활동 예산안

활동구분	예산	활동내용
행사비	650천원	- 전문가 강연(2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전학비용	650천원	- 우수사례 전학(9월)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천원	- 월례회의(4회) - 주민간담회(2회)
연구결과 자료제작비	5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제출(12월)
예산 총액	2,300천원	

I -2. 2022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동내역
10월	○ 10. 11.(화) 제로웨이스트숍(알맹상점) 현장방문 ○ 10. 31.(월) 10월 월례회의
11월	○ 11.18.(금) 지역 에너지전환활동 관련 전문가특강
12월	○ 12. 9.(금) 에너지전환공간(전주시에너지센터) 현장방문

I-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2022년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2,300,000원

☐ 지출금액 : 금767,870원(집행률 33%)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10/14	재활용매장 현장견학 실습비	알맹상점리스 테이션	156,620	견학비
2	10/14	재활용매장 현장견학 간담회비	서가앤쿵	175,000	간담회비
3	11/18	에너지전환활동 특강 강사료	신근정	240,000	행사비
4	12/8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여행보험	하나손해보험	4,050	견학비
5	12/8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의약품	명문약국	12,500	견학비
6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다과비	CU서대문구 청점	19,700	견학비
7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다과비	정안(하)휴게 소	7,500	견학비
8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간담회비	한국관	89,000	간담회비
9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다과비	전망	29,500	견학비
10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주차비	아주주차장	3,000	견학비
11	12/9	에너지전환공간 현장견학 간담회비	죽전휴게소	31,000	간담회비
합 계				767,870	

Ⅱ. 연구활동별 보고	7
1. 현장방문	7
2. 전문가특강	13
3. 월례회의	15

II-1. 현장방문

제로웨이스트숍 현장방문

- ☐ 일 시 : 2022. 10. 11.(화) 15:00~18:00
- ☐ 장 소 : 알맹상점 서울역점(서울시 한강대로 405)
- ☐ 방 문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및 서대문청소년의회 환경위원회 위원
- ☐ 방문업체 기본현황
 - 한국형 제로웨이스트숍 ‘알맹상점’
 - 2018년 망원시장에서 장바구니 대여, 내 용기 사용 캠페인 등 진행
 - 2020년 세제, 화장품 등을 가져온 용기에 리필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오픈
 - 프리사이클링(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함)과 리사이클링(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을 실천하고자 함
 - 2020년 브리타코리아에 폐필터 재활용 요구해 폐필터 회수 시스템 도입하게 함(‘브리타 어택’)
 - 플라스틱 외 고무패킹, 실리콘 등으로 구성된 탄산수 ‘씨그램’, ‘나랑드사이다’ 등의 병뚜껑을 재활용이 원활한 1가지 재질로 만들어달라는 캠페인을 펼쳐 한국코카콜라, 동아오츠카에서 이를 수용함

☐ 주요내용

- 매장 소개
 - 서울 망원점은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리필 벌크 제품 보유
 - 화장품, 세제, 차, 원두, 향신료 등 리필제품 보유
 - 매주 병뚜껑 재활용해 만드는 ‘플라스틱 달고나 워크숍’ 운영
 - 재활용 체계에서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 종이팩, 커피가루 등을 수거하는 ‘우리동네 자원회수센터’ 운영
 - 서울역점은 일회용품 없는 비건 카페와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운영 중

- 다회용 식기 대여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이용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음
 - 100% 비건음료 및 비동물성 제품 판매
- 알맹커뮤니티 회수센터는 재활용 가능 물품을 매장에서 수거하는 프로그램
- PP·PE 작은플라스틱, 일반팩·멸균팩, 말린 원두가루, 브리타, 양파망, 폐전선, 폐카트리지, 폐토너, 투명 페트컵, 중고휴대폰 등을 수거
 - PP·HDPE 플라스틱 병뚜껑은 이를 재활용해 만든 비누받침, 치약짜개 등의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
 - 종이팩/테트라팩은 화장지로, 원두가루는 커피화분, 커피연필로, 실리콘은 전자제품 버튼으로, 브리타 필터는 필터 걸플라스틱은 운반 팔레트, 내용물은 산업폐수 정화에 사용

□ 견학사진



에너지 전환공간 현장방문

- ☐ 일 시 : 2022. 12. 9.(금) 14:00~16:00
- ☐ 장 소 : 전주시에너지센터(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50)
- ☐ 방 문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 ☐ 방문기관 기본현황

○ 비전 및 미션

- 비전 : 2050 탄소중립 전주를 위한 시민협력 에너지전환 플랫폼
- 미션 :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활동 경로 제시

○ 추진전략 및 목표

- 1) 거점공간-지역사회 연계 시민참여 확산 → 공간운영 활성화
- 2) 탄소중립 시민활동 지원 및 교육 → 탄소중립 이행시민 확대
- 3) 태양광 컨설팅 상설화 →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4)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민 수용성 확대 → 건물에너지 효율 강화

○ 연혁

- (2016)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디자인3040” 수립
- (2017~2019) 민간협력사업 추진
- (2020) 전주시에너지센터 운영(민간위탁)
- (2022) 전주시에너지센터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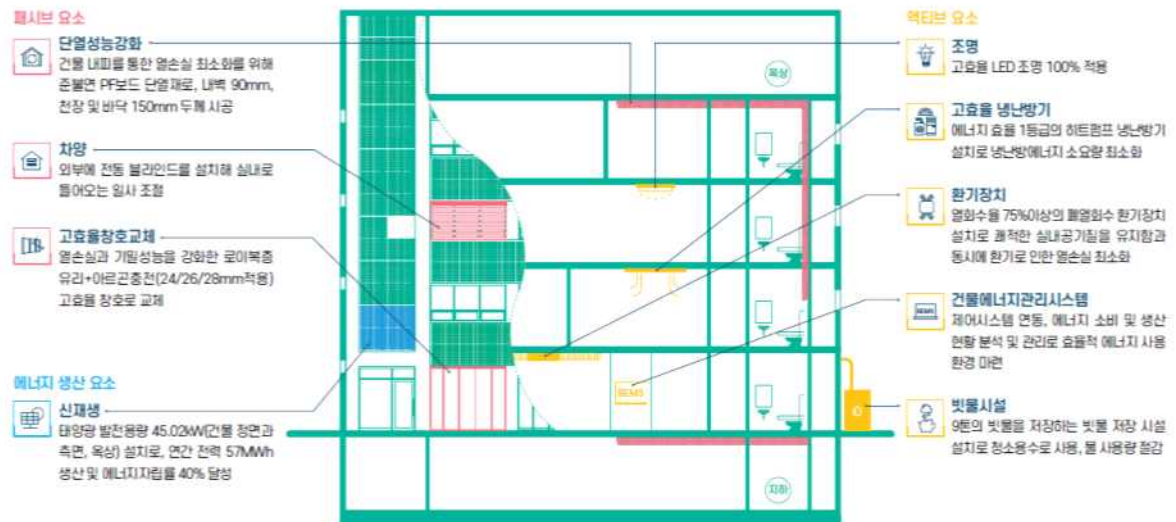
(노후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통해 시민 거점공간 구축)

○ 주요 사업

- 1) 에너지전환 시민협력 (에너지 효율제품 보급 사업, 에너지 탄소중립 활동 지원)
-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시민햇빛발전소 홍보, 에너지피크닉 행사 운영, 소형태양광 계통 연계비 지원 사업)
- 3) 교육 홍보 (건물에너지 성능 무료 진단,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민 교육, 에너지 효율 좋은 건물 선정 및 홍보, 에너지+문화=에너지와 예술하다, 에너지 자립 돋보기, 내 손으로 에너지하다)
- 4)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에너지전환시민포럼 운영, 지역협력사업 추진)
- 5)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
- 6) 조사연구 (전주시 햇빛발전소 지도 제작, 전주시 에너지 공유 플랫폼 구축)

○ 제로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건축요소

-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자립률 40%,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질답 내용

- Q. 도시에서의 에너지 사업이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지, 태양광은 실제 효율적일지 궁금함. 도시니까 직접 생산보다 절감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 A. 발전시설이 있는 곳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이 사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가능한 태양광에 주목해서 확대 방안을 규제 완화 등으로 노력하고 있음.
- Q. 전주시에너지센터가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이 또 존재하는지, 리모델링 전후로 에너지 절감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
- A. 현재 센터처럼 조성된 건물은 없음. 아쉬운 부분인데 노후되서 공실이었던 건물이라 이전의 에너지 데이터를 알수가 없음. 단지 건축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은 현재 수준의 단열 기준, 창호 열적 성능들에 맞춰 리모델링 된 것이라 이전에 비해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음.
- Q. 에너지 기금 규모와 사용처는?
- A. 130억 정도 되고 매년 적립되는 금액은 약 3억 정도 수준임.
- Q. 민관거버넌스 주도적인 역할?
- A. 시민 주도로 시민사회에서 행정에 먼저 제안하였음. 시민참여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함께 하면서 행정과의 신뢰를 쌓았고, 물론 이전부터 생태하천 등

으로 민관거버넌스가 일부 구축되어있는 상황이었음.

Q. 건축물 리모델링 시 에너지 진단 받아야 하는지 (세종시)

A. 현재로서는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없음. 증축 등은 신고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은 해당하지 않음.

Q. 건물에너지 진단은 어떻게 가능한지?

A. 건물 에너지 진단툴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에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있는 전주시건축물대장을 탑재한 것임. 프로그램에 주소를 넣으면 건물 사용 승인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당시 단열 기준 등을 보면서 현재의 기준과 비교해서 너무 낮으니 개선 통해 현재 기준으로 끌어올리면 에너지 절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임.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3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 진단 나가고 있음. 공동주택은 개별 가구로는 볼 수가 없어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고 단독 주택, 비주거 건축물 등만 가능함. 서울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만든 툴을 전주에 도입시킨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Q. 에너지센터 예산과 사업비,예산은?

A. 센터 건립은 전액 시비로 조성함.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2020년에 진행했으나 현재는 사업비 없어 진행하고 있지 않음. 신재생 보급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고유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전주시에서 이전받은 사업은 현재 없음. 센터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음. 교육 중심의 사업이 많다보니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규모화 되지 못하고 연속성이 떨어져 아쉬움.

Q.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구성한 것인지 궁금함. 서대문구에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가적인 기조가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조성된 이 사업 인프라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시민 참여활동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자치구는 어떻게 대응해야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A.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되었음. 에너지 문제를 지역 의제화·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조직이 시민포럼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임. 지금은 20여명의 시청,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사업 논의 및 정책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에너지 자립’은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 중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보고자 계획하고 있음.

□ 방문사진



II-2. 전문가특강

전문가특강 진행

- ☐ 일 시 : 2022. 11. 18.(금) 12:30~18:30
- ☐ 장 소 : 구의회 의정연구실
- ☐ 참 석 자 : 도시혁신연구회원 및 구청 기후환경과 직원,
관내 에너지자립마을 협의회 관계자
- ☐ 강의주제 : 지역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현재와 미래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 ☐ 강의 주요내용
 -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과제는 중앙정부-기업-시민사회-지방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
 - 구민 실천과 서대문구 정책 과제 연결이 필요
 - 탄소중립 정책일관성 확보, 탄소중립 문화확산, 이행점검 체계 및 평가체계 구축, 동단위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 신뢰 형성하는 것이 중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서대문구 추진체계에서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 정책변화 반영 → 환경정책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명칭 변경
 - 실행점검 구조 마련 → 실행TFT, 거버넌스 사무국, 전담 인력
 - 정보공유 →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보장할 정보 공유, 참여통로 마련
 - 의회와의 거버넌스 → 특별위원회 등 상시 협치구조 마련
 -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마을 활동 제안
 - 온실가스 감축량 47%를 구민 실천으로 설정, 촘촘한 환경교육·캠페인 계획 수립
 - 북가좌, 홍은, 천연·충현에 에너지자립마을 거점
 - 에너지자립마을 협의회 활성화, 지속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
 - 탄소 중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 사례 공유 (은평구 역촌동)
 - 인구 4만5천명, 2만 세대 내외 거주하는 동 단위 규모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했고 93%까지 감축할 수 있고 2050년까지의 경제적 효과가 3,300억 정도로 나오는 걸로 나타남. 동 1년 전기요금 금액이 186억인데 재생에너지가 지

역 기업과 연결된다면 예산이 지역 안에서 절감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사업 추진 의지 있음

○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보 필요

- 환경부가 2023년 기초지자체 20개에 1억씩 예산 배정할 것

-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통해 지역에너지센터 예산 배정
(3년째 진행중, 서울에서는 도봉구 지원)

- 서대문구 차원의 예산을 본예산/기금예산으로 편성해야

- 타부서 사업과 연계 가능(공동주택지원사업(주택과), 동 주민의제사업(자치행정과), 일자리 사업연계(일자리경제과)

- 건물,도로,배관,전력망 등 SOC 전환 추세

(참여 : 동의와 지지, 실천 : 정보제공, 행정지원)

□ 전문가특강 사진



II-3. 월례회의

☐ 월례회의 개최실적 : 총 1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10.31.(월)	1)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특강 및 간담회 개최 - 금년 연구주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점검’관련 간담회 개최 - 에너지자립마을, 태양열설치 관련해서 11월 중 전문가특강 실시 : 서울시 에너지정책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위탁기관(센터) 등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경과 및 전망 등 흐름 알려줄 수 있는 인물로 섭외 : 기타 참석자는 기후환경과 직원 및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중 의견 대변할 수 있는 일부 - 특강 이후 참석 범위 확장해서 주민간담회 진행 : 12월 초 예정 2) 연구회 운영 관련 - 단체카톡방 개설 - 신규멤버 네이버밴드 초대 3) 기타 - 기후환경과에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명단 요청 - 정책지원관 역할은 내용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회의사진



Ⅲ. 활동후기	17
---------------	----

2022년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경선 의원

8대 의회 때 개설되어 3년간 함께 했던 도시혁신연구회를 9대에서도 계속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었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의 4년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혁신연구회의 첫 활동은 청소년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로웨이스트숍인 알맹상점을 방문해서 판매

중인 미리 모아온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활동에도 참여하고 다회용 용기에 리필 제품을 담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1월 열린 청소년의회 정책제안발표회에서 업사이클링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니 현장 방문을 함께 한 것이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점검입니다. 서대문에서 활발히 진행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자립마을 관계자들과 관계 부서 직원들과 함께 전문가를 모셔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을 통해 서대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향방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제안으로 전주시에 조성된 에너지센터에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광역의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된 에너지센터로, 전주라는 지역 특성상 도심형, 시민참여형에 가까워 서대문에서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는 노후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였는데 건물 정면, 측면 등에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여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정도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진행사업 중 눈에
겨 볼 사업은 건물에너지 성능 무료 진
단이었는데 ‘건축물에너지진단툴’ 이라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소를 입력하
면 단열 등 건축 당시 기준과 현재의 기
준을 보여줌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성능
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참고해 서대문에도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4개월간 현장 방문과 연구 진행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직면하
게 될 재앙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연구활동을 더 지속하여 체계적
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기후환경 정책을 위한 제언

주이삭 의원

올해 도시혁신연구회 활동은 에너지 자립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활동위주로 추진해보았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며 개인과 일부 집단에겐 보람은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과 국가적인 면에선 그 활동이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수년간 서울시 및 서대문구 기후환경 정책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전주시에너지센터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도시 인프라 내의 에너지자립 방안은 태양광 외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너지센터 건물의 남향 면을 전부 태양광으로 뒤덮어도 전체 전력의 40%만 충당 가능하단 점을 단순 계산해 전주시 내 전체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전체 전력 중 60% 이상은 반드시 주변의 타 발전소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거대한 하드웨어, 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꾀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를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서 확인했다시피 태양광 사업은 현실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을 비교해볼 때 확실히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은 아니라 봅니다. 하지만 최대 40%의 전력을 공급하여 그만큼의 석탄을 통한 에너지 수급량은 줄이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력의 생산은 어려워도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그마한 실천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후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각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는 학령기 때부터 교육을 통해 상식 수준으로 이해되게끔 해야 할 것이고, 서대문구 내 실천적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다양한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되어있는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의 역할을 고민해볼 때이며, 서울역 알맹상점과 같은 시설이 주거지역 곳곳에 설치되게끔 정책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안산자락길 중간마다 이런 공간을 조성해두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환경 관련한 서대문구의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에너지 대체와 에너지 소비 줄이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위해 에너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혁신연구회에서의 1번째 해를 보내며

서호성 의원

9대에 재입성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사와 평가를 하였지만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하반기 동안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하느라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을 쪼개어 활동하였고 내년 활동에 대한 영감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래도 연구단체 회원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 제로웨이스트숍 방문도 청소년들과 제로웨이스트 및 리사이클링 등에 직접 상품을 보고 체험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를 방문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주한옥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태양광 패널로 전면이 꾸며진 건물을 들어서며 공간이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였고 민간에서의 탄탄한 조직력이 행정의 협력에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에너지 전환이라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도심에서는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에너지 절약이나 절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을 함께하는 동료의원들과 관심가는 주제로 학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IV. 언론보도	21
-----------------------	-----------

□ 주요 보도내용

서대문인터넷뉴스 2022.10.31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경선), 청소년들과 친환경 상점 체험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환경위원회와 함께 현장 찾아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이경선)는 지난 11월 11일 서대문청소년의회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현장을 체험했다.



좌) 주이삭, 이경선, 서호성 구의원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뜻한다. ‘제로웨이스트 숍’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품부터 판매방식까지 친환경을 표방한 상점을 말한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로웨이스트 숍은 단순히 재사용, 재활용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닌 분리배출 회수 공간, 환경 운동까지 공유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이날 도시혁신연구회(이경선 대표의원, 서호성, 주이삭 의원)는 서울역에 위치한 친환경 상점(제로웨이스트 숍)을 찾아 친환경 실천에 대한 최신 동향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연구회 뿐 아니라 서대문청소년의회에서 환경위원회로 활동 중인 학생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실시, 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또, 제품 생산부터 유통, 이후 쓰레기 처리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순간에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 체험을 마무리하며 도시혁신연구회 이경선 대표의원은 “오늘은 특별히 환경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상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배우고 익힌 만큼 앞으로 연구회와 청소년의회가 더 많이 소통하고 각종 환경 정책과 사업 시행에도 힘을 모아 보겠다.” 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dminews.co.kr/index.do?menu_id=00000265&menu_link=/front/news/icms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621

매일일보 2023.01.15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 서대문형 에너지 전환 방안 연구 매진
에너지 전환활동 관련 전문가특강 진행 이어 직접 현장 견학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가 지역 에너지전환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혁신연구회(이경선 대표의원, 주이삭 간사, 서호성 의원)는 9대 의회 들어 구성의원과 세부 연구과제 등을 새롭게 정비,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분석, 서대문구가 나아갈 방향과 향후 목표까지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를 초청, ‘지역 에너지전환활동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에너지전환에 대한 최신 동향 파악은 물론 서대문구 발전 방향을 공유 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및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관내 에너지자립마을 관계자들도 참석,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과 기후 변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현장 답사를 통한 실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자 에너지 전환공간인 '전주시에너지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전주시에너지센터는 2022년 6월 개관한 에너지전환 시민 거점공간으로 노후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을 거쳐 조성한 공공건축물이다.

이에 연구회는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과 직접 만나 시설 견학은 물론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사안과 에너지 전환 사업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시군구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예산부터 제도 개선까지 서대문구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안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혁신연구회 이경선 대표의원은 “지난 4개월간 현장 방문과 연구 진행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직면하게 될 재앙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며 “2023년에는 연구회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진행,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79799>